

# 일레인 필립스 박사, 성서 연구 입문, 세션 15, 1, 2 에녹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15회, 에녹 첫째와 둘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경 외 문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그것이 복잡한 연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션에서 제가 아마도 초경적 문학의 범주 중 하나인 위경의 최고의 사례라고 부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 강의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먼저 약간의 복습을 얻은 다음 위경이 장르나 방대한 문학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음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녹과 그 본문,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녹은 실제로 우리가 배경, 특히 신약의 배경을 다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위경(pseudepigrapha)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이전 입문 강의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상적인 성경 인물에 대해 거짓으로 간주되는 글입니다. 이제 물론 질문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입니다. 글썄요, 우리는 아담, 에녹,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라 등의 사람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위경문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 특정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글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시기, 몇 세기에 걸쳐 글을 쓰는 공동체가 있듯이,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압을 받고 살아가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은 정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정경을 자신들의 권위 있는 경전으로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다소 가혹한 상황에 맞게 정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미래와 관련하여, 대체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하여 다가올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추정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더 좋은 방법은 성경 본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인물이 표현되는 성경 인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늘 영역과 특별한 관계, 즉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럼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에녹,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5장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글썄, 그것은 어떤 종류의 탐험을 위한 완벽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나요? 그 당시 그는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빠른 예로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것은 다소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구별된 동물의 부분이 있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있는 동안 연기는 화덕이 그 동물의 부분 사이를 지나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의 미래에 관한 계시적 경험이 있습니다. 글썄요, 다시 한 번, 그것은 이러한 커뮤니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그는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일종의 계시를 위한 완벽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방금 말한 것을 검토해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직면하여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특별 계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야구장 시작일과 끝일입니다.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길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중요한 일의 측면에서 끔찍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가 성전을 모독했을 때, 그 모든 의미는 한 세기와 그 이후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로마에 대항한 첫 번째 유대인 반란과 로마에 대한 두 번째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위경적 구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특징적으로 묵시적입니다. 즉 계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위경의 모든 측면이 본질적으로 반드시 묵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서 4장의 일부는 철학적인 추측에 가깝지만 대체로 묵시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장을 풀 필요가 있으며,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묵시 문학의 특징인 리뷰입니다. 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런 식으로 제기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암울한 상황 때문에 이것은 선이 승리할 때를 고대하는 문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드리자면, 카논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는 비밀스러운 용어로 선이 승리할 때를 고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이 마침내 악을 승리한다는 관점에서 계시적이기 때문에 성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묵시적인 문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 우리의 주요 인물, 비정규 텍스트의 측면에서 우리의 위경적 인물 측면에서 제시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이러한 묵시적인 유사 경전 텍스트는 정경 묵시 텍스트에서 그 기초를 찾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종말론적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위경(pseudepigraphic)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우리의 유사 묵시록 작품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장르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숫자, 환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환상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9장에 묘사된 메뚜기, 또는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을 보았을 때 본 것들 중 일부라고 제안합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접할 수 없는 이미지이며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와 거의 동일하며 상징적인 메시지를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특성을 강조한다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의 위경문학과 묵시문학 전반에 걸쳐 몇 가지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자면, 모든 텍스트에서 상용구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양한 경험적 철학적 종교적 렌즈를 통해 굴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뤄지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 악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악을 어떻게 다루나요? 그거 어디서 났어? 그것을 무엇처럼? 분명히 이것은 이러한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분열시키는 만연한 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텍스트는 그것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First Enoch가 분명히 그것과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들 중 많은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초월적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아마도 헬레니즘적,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방식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끔찍한 악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가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많은 텍스트에는 천국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임박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결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물들이 천국의 다양한 수준을 통과한다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한 협박을 받고 있는 공동체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구원의 원천이 될 인물, 사람, 누군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적 인물로 나타나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삶은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관심, 욕망, 갈망이 커지고 어떤 고귀한 상태인 부활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다른 주제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해 문서를 방문했을 때 본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선하거나 악하게 보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지만 우리의 이원론 영역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유대교 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가올 세상을 기대하는 일종의 시간적 이원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강조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랍비 자료를 간략하게 살펴볼 때 다시 살펴보게 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구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감각과 구별이 있고,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둘을 하나로 합칠 것입니다. 일종의 수직적 이원론입니다. 한편으로는 천국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성경 본문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선택된 이 특정한 위경적 인물이 어떻게 천국의 수준을 통해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종종 어떤 방식으로든 하늘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수직적 이원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해 본문을 다룰 때 이것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느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 사해 문헌에 따르면,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대결하며, 그들 사이에는 계속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 내부에서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에스라 4서의 본문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옆두에 두고 Pseudepigrapha의 실제 씬네일 스케치로서 다음 순간을 위해 Enoch 문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창세기 5장은 에녹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계보 패턴, 수사학적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에녹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900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의 나이는 365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완벽하고 완벽한 성경적 이상적인 인물이 됩니다. 에녹 1대와 2대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가 다루려는 것은 이 두 가지뿐이고 심지어 부분적으로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에녹은 이 본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큰 텍스트입니다. 긴 텍스트입니다. 합성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단편이나 전체를 담고 있는 언어의 관점에서 이것을 지켜온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는 그것의 개별적인 부분을 잠시 후에 지도로 그려볼 것입니다. 우리는 기원전 200년대와 같이 3세기 초반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아마도 1세기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 후.

두 번째 에녹은 다른 본문, 아주 다른 본문입니다. 우리는 동부 정교회 내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슬라브어가 언어입니다.

그것은 서기 1세기보다 늦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 즉 천국의 수준에 있어서 그 버전들이 약간 다른 점에 대해 몇 가지 메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관련이 없는 세 번째 에녹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아마도 서기 4세기, 5세기쯤에 작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녹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중 두세 가지만 파헤칠 것이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짧은 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판단에 관한 책입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문맥상 쓰여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세기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으며, 이 저자는 악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6장부터 36장까지는 감시자들의 책이라고 불린다.

이제 Watchers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구별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1절부터 4장까지에서 이것은 예녹 첫째의 특정 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중에서 몇을 취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후에 4절에도 네피림이 그 그림의 일부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녹서 1장 6~36장은 이 감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이 확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작은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시기는 적어도 기원전 2세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사라고 불리는 섹션 37부터 71까지를 계속하면 날짜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 늦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판단은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특히 38장부터 46장까지에서 사람의 아들과 택하신 자라고 불리는 누군가에 대한 강한 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복음 이야기를 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종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연구의 모든 것을 후속 섹션에서 다룰 것입니다. 달력을 다룰 약 10개의 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쿰란 본문과 관련하여 1년이 364일인 태양력을 채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력은 항상 유대인 공동체의 하위 텍스트였습니다.

음력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매우 이상한 장이 있습니다. 동물은 제가 말했듯이 아담 시대부터 마카베오 시대, 즉 기원전 2세기까지 역사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심판, 묵시적인 심판, 그리고 노아의 탄생에 대한 추정된 예언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나타나는 창세기 6장은 에녹이 승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창세기 5장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은 홍수를 촉발한 것에 대한 움직임을 그려볼 것입니다. 이것이 섹션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해졌는지, 또는 원고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 문학에서 에녹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몇 군데만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아,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녹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그 당시, 특히 서기 1세기에도 '흠, 이거 흥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녹이 있고, 에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12조의 유언장에는 반복적으로 에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녹, 우리에게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에녹의 두루마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 교회 내에서 이 본문이 어떤 면에서는 정경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교부들은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으며 여러분 모두가 다음 요점인 유다서에 대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1세기 청중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성장하고 번영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에녹1상을 생각해 봅시다.

유다와 아담의 일곱째 손인 에녹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녹에서는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담의 일곱 번째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첫 번째 에녹에 나타난 전체 진술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에녹서에 나오는 평행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에녹은 이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천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한 모든 가혹한 말들 중에서.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시다시피 유다서는 모두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에녹의 구절이 있습니다.

1장 9절과 10절.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거나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이와 평행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라 그가 수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멸하시며 모든 육체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일과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고초에 대하여 정죄하시리라 그를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은, 거기에는 매우 분명한 공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에녹을 인용하는 데 강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반드시 이것을 에녹이 오래전에 썼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의 60장 7절에서 문학적 확언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말해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집니다. 주해. 나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서에는 특히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감시자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타나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Azazel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주요 악마입니다. 잠깐만요. 그들은 특히 전쟁과 유혹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경적 주제 중 하나가 악의 본질과 기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글썬요, 창세기 6장을 통해 생각하면서 이 특별한 치료법을 생각해 내는 우리 에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악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액 죄. 한편으로는 폭력과 전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이 꽤 길어졌습니다. 아자젤은 어디서 나오나요? 글썬요, 그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약성경과 오경, 레위기를 알고 있다면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에 단 한 번만 나타나고 속죄일에 대한 설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두 귀신이 있으면 한 귀신은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다른 귀신은 백성의 죄를 머리 위에 고백하고 아사셀에게로 보내느니라.

그는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Azazel이라는 단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므로 희생양은 제외하십시오. 그는 아자젤의 염소입니다.

글썬요, 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성경 연구생들은 염소 악마가 광야의 주요 악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은 염소와 염소 우상을 언급할 예정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zazel은 그들의 이름이 붙은 인물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시간이 문제다. 여기에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위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용문의 일부는 8장에 나옵니다. 아자젤은 사람들에게 칼, 칼, 방패, 흉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천국의 금속을

알려 주었습니다. 지구와 그것을 작업하는 기술. 따라서 그 작은 부분에서 이 전쟁과 그에 따른 모든 의미를 볼 수 있지만 계속됩니다.

팔찌, 장신구, 이율배반의 사용, 눈꺼풀의 미화, 모든 종류의 값비싼 돌, 착색용 톱크, 즉 유혹. 그리고 불경건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음행을 행하고, 미혹되어 그 모든 행위가 부패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성경의 이름, 성경의 주제, 홍수의 서곡을 취하여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매우 장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서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피림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로 자식을 낳았으니 죄송합니다. 그 분들이겠죠. 그들은 고대의 영웅이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다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전의 묘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그것을 가지고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자들이 임신하여 키가 삼천 규빗이나 되는 큰 거인을 낳았더라.

그들은 백성들이 먹기를 싫어할 때까지 백성의 모든 소산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성경 외의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문화적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인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인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에게 죄를 짓고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네피림, 그리고 물론 거인-네피림 연결은 아나김, 네피림, 거인이 대표되는 민수기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그곳에 갈 시간은 없지만, 우리 저자가 이 네피림의 아주 나쁜 방식으로 무섭고, 끔찍하고, 초자연적인 성격에 관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계속 읽으면서 더 이상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그리고 우리 저자에 대한 질문은 타락한 천사들이 외설적인 행동을 하고도 도망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대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당장 심판을 집행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라파엘, 미카엘, 가브리엘은 타락한 천사들을 처벌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생물 중 일부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아자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헌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외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천사들 중 일부는 대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라파엘은 이 그림의 일부이기도 함을 의미합니다.

길고 짧은 것은 Azazel이 묶여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 사막의 어둠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물론 이는 아자젤이 광야로 보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염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암시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피조물, 즉 감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 본문에서 제시됩니다.

그는 자비로운 개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로 제시되었지만, 이 맥락에서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권고 받았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다루고 싶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econd Enoch와도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비유나 비유라 불리는 장들에서 우리는 매혹적이고 매혹적인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사람의 아들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로 불리는 누군가가 다니엘 7장에서 그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들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에녹서 46장부터 62장까지의 장면에 대한 예언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일곱입니다. 다니엘 일곱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있습니다. 재판석이 있어요.

그는 왕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3장과 14장에 비해 그의 임재 안으로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에녹 문학은 그것을 역대 전의 것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고대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역대의 프로토타입을 갖게 됩니다. 저는 찰스워스에 나오는 번역본을 읽고 있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는 택하신 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있다는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미 말한 것, 즉 다니엘 7장의 고대 시대에 대한 간략한 썸네일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있더라.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받으셨느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의 백성이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의 권세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니라. 그분의 왕국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복음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특별히 자신을 위해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선택하셨습니다. 확실히 나는 그것이 다니엘 7장, 특히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는 내용에 의도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가야바 앞에서 있을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서와 복음서 사이에 있는 이 문학 작품을 통해 옮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녹 문학이 이것으로 하고 있는 일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상황 개념을 전개하는 이 전체 인간의 아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한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읽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특정 제목의 전개와 예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의미했던 바를 다루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말했으므로 이 장에서 우리의 특별한 인물과 사건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제가 반복하는 몇 가지 내용을 함께 그려서 그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위한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에스겔서에서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다니엘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며 자신을 위해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어쨌든 46장은 모든 시간, 즉 모든 시간 이전에 속하신 분, 그리고 인간과 같은 얼굴을 가진 분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설명의 일부입니다.

그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며, 제가 조금 전에, 역대 최초의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자라 불리며 메시아라 불리며, 택하신 자 곧 택하신 자라 불리느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것은 정말 중요한 제목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기원전 1세기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반영되거나 제안되거나 설명되는 모든 것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택하신 이, 이 택하신 이가 공의와 관련된 일을 하시고 이방인의 빛이라 부르느니라. 물론, 그것은 우리의 안테나도 파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의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글썄요, 때때로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파고드는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의 종이 무엇보다도 열방의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방인들에게 정의와 빛을 가져오며 공의를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는 그 중 일부가 다니엘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그 시점에 우리 인구의 적어도 특정 부분의 생각을 풍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위한 기초의 일부라고 제안했습니다. 남성.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가 이것을 하라, 인자가 저것을 하라”라고 부르실 때 사용하신 용어가 있습니다. 인자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십시오. 인자는 네 옆에 누워라 . .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분은 에스겔을 인간, 선지자, 종,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맡겨진 존재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서는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은 분명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부여받은 하늘의 존재이며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점은 7장의 끝 부분에서 성도들도 그 칭호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먼저 이스라엘이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듯이, 이사야 56장에 이르면 그 종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라고 불려라.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한 유사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에녹서 1장에서 서로 얽혀 있는 인자의 참조와 주님의 종의 참조 사이의 조합, 풍성함, 풍부함, 풍부함, 상호텍스트적 조합을 언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실 때, 자기 지시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특히 가야바 앞에서 훈계를 받거나 가야바에게 맹세를 당할 때, 네가 아들이냐? 신의?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다니엘서 7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다른 모든 문화적 반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기소됩니다. 왜냐하면 가야바가 듣는 것은 단순히 인간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에녹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2 Enoch로 조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에녹서에는 두 가지 다른 버전, 두 가지 다른 개정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는 우리가 천국의 수준을 보는 방식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이 텍스트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맛을 알아보기 위해 이것은 기원전 1세기 이후의 본문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에녹서 1장에서 본 난해한 것들을 탐구하는 것보다는 거의 속담에 나오는 지혜와 실천적인 의로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가장 큰 관심을 위해 우리는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1st Enoch에는 여러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에녹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더 큰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에녹 1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녹 2서에 도달할 때쯤에는 이 내용이 실제로 자세히 설명되고 정교해졌습니다.

세븐스가 됩니다. 69장 너머에는 성경의 홍수 전 인물인 므두셀라, 니르(Nir)라고 불리는 사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 인물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어쨌든 홍수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2대 에녹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에녹후서에 묘사된 천국의 일곱 단계에 맞춰질 것입니다. 나는 전에 이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준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것이 우리 1세기 문화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취하고 그것에 단어를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첫 번째 수준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천국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하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첫 번째 수준은 여러분이 하늘에서 보는 것, 저 창공에 있는 것, 즉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은 모든 기상학적 사물의 저장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는 그들의 마음과 표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위경적 이상형이 갈 수 있는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워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첫 번째 수준 위에는 두 번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사들이 매달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글썄요, 그들은 창세기 6장과 관련하여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그 메아리를 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천국의 세 번째 수준은 다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수준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곳은 썩지 않는 것과 부패한 것 사이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사고방식, 특히 일종의 신플라톤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문화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물이 더 순수 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육체적인 것과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할 수 있는 것과 부패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세 번째 수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의인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이제 나는 또한 이 설명의 일부로서 이 세 번째 수준의 북부 지역, 즉 천국이라고 불리며, 이와 관련된 처벌도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용하고 인용하지 않는 천국 지리학의 매우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수준. 이것은 길고, 길고, 길고, 긴 부분입니다.

또한 시간을 측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논의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인 욕 4에는 날과 시간과 계절을 측정하기 위한 해, 달, 별, 별자리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창세기 1장을 참고하고 있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레벨 2에서는 심판을 기다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레벨 5에서는 이러한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첫 번째 에녹인 에녹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유죄입니다.

6층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천사들과 대천사들이 있고, 7층에는 그룹들과 스랍들과 바퀴들과 보좌들이 있다. 종종 이것은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의 환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수준 이상, 그리고 다시 에녹후서의 A 버전을 읽느냐 B 버전을 읽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바로 위나 열 번째 수준에서 우리는 실제로 주님 자신의 보좌에 계시거나 그분의 보좌에 계십니다. 이것이 에녹후서가 제시하는 천국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많이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 말은, 그래서 뭐?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하늘 군대의 형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날, 그리고 이것은 물론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가 기록한 작은 묵시록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산당에 있는 군대, 하늘의 군대를 벌하실 것입니다.

하늘에는 땅의 왕들이 모이고 죄수들은 지하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천국 어딘가에 있는 지하 감옥이나 감옥, 죄수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작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서 레벨 2와 레벨 5에 대한 이해를 함께 끌어내면서 그것에 매달리십시오. 골로새서 2장은 권력과 권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음, 분명히 우리는 이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는 신약성서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밝혀지고 밝혀지는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마음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추억을 조금 되새기도록 할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많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사람을 아노라'.

나는 이 사람이 낙원에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일,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일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늘 영역에 대한 더 넓은 이해의 일부인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세 번째 수준을 사용하며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용어는 다시 말하지만 천국의 지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용어를 사용하여 내가 천국 너머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소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흥미로워지죠? 이것을 시도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래전에 옥에 있는 불순종한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라 노아의.

그리고 방금 이사야 24장의 그 구절을 참조하거나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지만 그건 그렇고, 나는 이것을 첫 번째 피터 배경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베드로는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누구든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능히 대답하되 온유와 공경으로 대답할 것을 권면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훈계와 우리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방식에 이어 그가 불순종한 영들에게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설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로 따른다는 것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는 심판을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하나로 묶은 것뿐입니다. 천국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글썄, 이제 나는 팔다리를 따라 걸어갈 것이고 당신은 그 팔다리를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나란히 서 있을 때,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당신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낙원은 의인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면, 특히 베드로가 하늘에 대한 더 넓은 문화적 표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서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매우 조잡하고, 천박하고,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강도에게 이르시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거기 의인의 거쳐 곧 의인의 거처를 약속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그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도중에,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극도로 야만적인 용어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중에 피터는 이것을 끌어낼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을 기다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지나치실 것입니다.

피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안식처에 가셨을 때 지옥이 아니라 무덤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는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있는 전체 그림의 일부,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가 아마도 심판을 설교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관찰을 해보자.

성경 외의 텍스트는 저자가 자신의 성경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해왔고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터는 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24장에서 천군에 대한 심판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문화적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경전의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문화적 이해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한 것처럼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당시 유대교에 통용되던 보다 풍부한 방식으로 짜여진 본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분의 J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음, 저는 여기서 매우 조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제가 신학적인 부분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그 3일을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무덤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특징적으로 하데스가 번역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는 하데스에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데스는 아마도 3층 천국의 북쪽 지역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대중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데스가 번역한 특성은 지옥으로 잘못 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한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특정 해석을 읽을 때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복한 것처럼 그는 무덤에 내려가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더 나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지로 걸어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슬라이드쇼의 끝이기 때문에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언 문헌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Elaine Phillips 박사와 그녀의 성경 연구 입문 강의입니다. 15회, 에녹 첫째와 둘째입니다.